

같이 보기

: 미디어 속 직업병

영화 <오케이 마담>은 생애 첫 해외여행에서 난데없이 비행기 납치 사건에 휘말린 부부가 숨겨왔던 내공을 발휘해 승객 구출 작전을 펼친다는 내용의 액션 코미디다. 영화에는 테러리스트만큼이나 치명적인 직업병이 숨어있으니, 바로 승무원을 위협하는 '하지정맥류'다.

글 편집실

오랜 시간 기내에서 서 있는 승무원에게 나타나기 쉬운 병

영화 <오케이 마담(2020)>을 통해 본
하지정맥류



과배기 가게 사장님에게 주어진 특별! 피랍 항공기를 구하라

영천시장 과배기 맛집 사장 '미영(엄정화 분)'은 연하 남편 '석환(박성웅 분)'과 금지옥엽 같은 딸에게 닭살 돋는 애교를 남발하는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엄마다. 부부는 하나뿐인 딸 나리를 잘 키우고자 아끼고 절약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신혼여행마저도 부곡 하와이로 다녀온 부부의 오랜 꿈은 고장 난 세탁기 한 대를 바꾸는 것.

그러던 어느 날, 석환은 2등 세탁기 당첨을 바라며 비타민 음료를 마시던 중 예상치 못한 '1등 해외여행'에 당첨된다. 생활비를 걱정하던 미영은 당첨권을 주고 나라에 팔려 하지만, 해외여행을 꼭 가보고 싶다는 딸의 애원에 가족은 하와이행 여행길에 오른다.

들뜬 마음으로 여행에 나섰지만 비행기는 북한에서 온 테러리스트에 납치되고 만다. 난데없는 비행기 납치 사건에 맞서 미영은 평범했던 과거는 접어두고, 숨겨왔던 내공을 펼치며 인질이 된 승객을 구하기 시작한다. 영화에는 승객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승무원의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첩보 요원을 꿈꾸지만 매일 구박당하던 허당 신입 승무원 '현민(배정남 분)'은 비행기가 납치되자 그동안 갈고닦았던 실력을 발휘하며 비범한 능력을 보인다.

그러나 현민처럼 튼튼한 승무원에게도 위협적인 직업병이 있으니, 바로 하지정맥류다.

오래 서서 일한다면? 하지정맥류 주의보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종에 으레 따라붙는 게 바로 하지정맥류다. 1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은 승무원을 비롯해 간호사, 교사, 미용사 등은 하지정맥류에 취약한 직업군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근로복지공단은 KTX 승무원의 하지정

맥류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도 했다. 장시간 서서 근무한 것, 굽 높이가 4.5cm인 구두를 신고 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점, 휴식 공간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하지정맥류와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정맥류는 정맥 내부의 판막 기능 장애로 인해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부풀고 구불구불한 형태를 보이는 질환이다. 정맥 판막은 다리에서 심장으로 위로 오르는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데, 생활습관이나 유전, 노화 등으로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 위로 오르던 피가 역류하고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압 증가와 함께 하지정맥류가 발병한다. 발병 초기에는 의료용 압박스타킹이나 약물로 어느 정도 증상을 개선할 수 있지만, 보다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아울러 하지정맥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온찜질이나 사우나를 피하는 것이 좋다. 뜨거운 온도에 노출되면 정맥 탄력이 저하돼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지정맥류가 의심되나요? 체크해보세요!

- 아무런 증상 없이 허벅지나 종아리, 발목 부위 혈관이 튀어나온다.
- 다리가 자주 무겁고, 피곤하며 쥐가 난다.
- 복숭아뼈 근처 피부가 변색이 됐다.
- 피부에 궤양이 생기고 출혈이 있다.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은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야 가능하다.

TIP

하지정맥류, 이렇게 예방해요!

- 오랜 시간 서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한다.
- 장시간 서 있어야 하면 의료용 고탄력 스타킹을 착용한다.
- 틈틈이 다리를 스트레칭하거나 적당히 걷는다.
- 배가 심하게 조이는 옷은 피한다.

